

9장 이야기로서의 진화론과 19세기

(1교시)

◆ 이야기로서의 진화론

※ 학습목표

이야기로서 진화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한다.

▲ 진화론과 所設 (fiction; hiStory)

history의 어원은 his story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history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 진화론 또한 하나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새롭다. ‘과학과 똑같지 않다.’(허구적이다)는 점에서 그렇고 과학까지 포괄하는 커다란 의미에서의 서사라는 점에서 또한 그렇다.

▲ 진화론 이전의 시간 개념

서구를 기준으로 계몽사상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달랐다. 동양(한자 문화권)의 경우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時만 존재하고 時間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때, 철에 알맞은 일을 해야 하는 時는 있었지만 일정한 범위를 제한하는 시간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주나라의 봉건 체제에 대한 공자의 열망, 혹은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미래가 더욱 악화(쇠퇴, 타락)될 것으로 보고, 이 흐름을 역전시켜 황금의 그 순간을 다시 살자는 제안일 것이다. 미래의 약속이란, 그 외관상의 시체는 미래지만, 완전한(perfect) 시간의 도래라는 점에서, 아득한 과거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미래라기보다는 시간 없는 영원의 반복이다. 이런 점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인류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켜 보인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만하다.

▲ 창조론과 진화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와 『구약성서』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야기/허구’(story/fiction)들이 이 세상의 처음과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른바 과학주의(Science를 섬기는 각종 신조)가 강요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일 뿐이다.

▲ 역사주의적 세계관

역사란 무엇보다도 과거에 대한 강조다. 지금을 알기 위해선 지금이 있게 만든 지금 이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미래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만 여겨지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 계열 속에서 우리를 움아매는 것이야말로 역사(주의)의 기능이자 책략이다.

▲ 19세기와 글쓰기

19세기가 과거에 주목한 것을 법칙에의 굴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법칙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당시 과거에 대한 생각들은 지구의 나이,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 그

러한 영향의 가치, 잊혀진 과거를 되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 가지 예로 프로이트의 경우 현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아주 독특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9장 이야기로서의 진화론과 19세기

(2교시)

◆ 19세기와 역사주의적 체계

※ 학습목표

19세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당시의 역사주의적 체계에 접근한다.

▲ 19세기와 역사주의적 체계

1859년 다윈은 자신이 연구하던 한 지역의 나이를 3억년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1862년 물리학자 켈빈 경(Lord Kelvin)은 냉각 속도에 입각하여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일억년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껏해야 이천만 년 미만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윈은 당황하며 용불용설/획득형질의 유전을 좀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1903년 3월 피에르 퀴리와 알베르 라보르드(Albert Laborde)가 라듐염이 끊임없이 열을 방출한다고 발표하자,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늘이는데 그 발견을 이용한다. 열의 방출이 지구의 냉각 속도를 늦췄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 등 기술의 발전은 기억을 기록할 수 있게 됨으로서 기억, 과거의 중요성을 대두시킨다.

- “인생의 초년기에 받은 인상들은 그 대부분이 망각 속에 묻혀 버린다 해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긴다는 점에서 우리는 흔적이다. 단 다윈에게 있어서 어떤 흔적도, 어떤 과거도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이 점에서 다윈의 사상은 ‘과거-현재-미래’의 틀에서 탈출한 실마리를 포함한다.

- 과거의 영향과 관련한 프로이트의 공헌: 가장 먼 과거, 즉 초기 유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경험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경험이라는 것 / 가장 중요한 기억들은 억압된 것이지 그냥 잊혀진 게 아니라는 것 / 꿈이나 신경증은 모두 유아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 / 모든 경험은 지속되는 기억의 흔적들을 남긴다는 것

- “마르코 성당에서 세례를 받던 때와 비슷한 감정을 불러낸 첫 번째 기억은,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차에 적신 마들렌을 맛볼 때 느꼈던 행복감을 상기시킨다. 그 뒤의 무의식적인 기억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그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준 것이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색깔, 향기, 기운을 연상시키는 것이 이때의 가장 간단한 작용인데, 이 무의식적인 기억이 감각적으로 충실한 연상들 속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는 행복했던 순간들의 강렬한 기쁨을 경험한다. 현재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 현실의 본질을 확연히 분간해낼 수 없으며, 지성은 그것을 파악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 오직 지나간 시간의 시점(視點), 되찾은 시간의 시점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고 그 회복을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 그것만이 참된 낙원이다.

▲ 역사적/발생적(genetic) 접근 방식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생득 관념이나 인간의 **선験적인(a priori)** 본성을 거부하고, 인간은 전

적으로 역사와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했다. 19세기에 콩트, 헤겔, 다윈, 스펜서, 마르크스는 모두 철학이나 국가, 사회 체제, 생명체는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으며 현재의 형태는 지나간 과거의 모든 자취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19세기말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쇠퇴함에 따라 사람들은 신 없는 세계에서 생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 사상가들이 제시한 체계로부터 많은 것을 끌어왔다. 인간이 영원한 신의 세계에서 더 이상 자신의 처소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면, 대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처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딜타이, 베르그송, 프루스트, 프로이트의 저작들은 물론이고, 19세기 사상가들이 제시한 거대한 역사적 체계는 역사적/발생적(genetic) 접근 방식을 찬양한 반면, 많은 동시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과거가 현재를 삼켜버릴 지도 모른다고 비난하며 열렬히 반대하기도 했다.

* 참고자료: 민중의 적 (헨리 입센/ 광복록/ 신원문화사)

- 기억에 남아있거나 혹은 어느 순간 퍼뜩 떠오르는 과거의 파괴적인 행위: 입센의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는 기억”은 1880년경 시작된 유럽 사상의 일반적인 경향의 일부가 아닐까. 바이스(Kurt K. T. Wais)에 따르면 스트린드베리, 졸라, 주더만, 하디 등 당대의 수많은 지식인들은 과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포기하고, 인간은 부모들의 질병을 물려받고 그들의 악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물학적·역사적·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한 숙명론적 비관주의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 헨리 입센의 작품들

헨리 입센(Henrik Ibsen)의 작품에서는 유전, 갑작스런 과거의 폭로, 집요하게 따라붙는 기억들로 인해 등장인물들은 불구가 되거나 죽음에 이른다. 『헤다 가블레르』(1890)에서 입센은 헤다의 남편 테스만으로 대표되는 역사가라는 직업을 고발하는데, 테스만은 중세 시대 브라반트의 가내 수공업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는 데 너무 열중해서 다섯 달 이상 지속된 신흥여행 기간 중에도 연구에서 손을 놓지 않는다. 2막에서 헤다는 자신이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문명사에 관한 얘기밖에 들을 수” 없는 **운명**이라고 탄식한다.

9장 이야기로서의 진화론과 19세기

(3교시)

◆ 19세기, 과거를 찾아간 기록

※ 학습목표

19세기에 비추어 다윈의 진화론이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 선부유전, 가계도, 발생반복설

선부유전: 선부유전(telegony) 혹은 性合時 음란한 생각을 하면 부모의 성 액체가 혼합된 것이 (획득 형질과 함께) 자손들에게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성합, 임신 이전부터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토마스 하디는 단순한 계보(genealogy) 하나만으로도 작가는 대단히 복합적인 이야기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가계도(family trees)는 구체적인 드라마로 변형될 수 있으며, 작가들은 무의식중에 수많은 모티브, 정념, 개인적 특질들을 이야기 속에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들은 동물 조상, 먼 조상, 최근의 조상, 임신 순간, 임신 등 다섯 시기를 탐사했다.

발생반복설: 개체발생(ontogeny)이 계통발생(phylogeny)을 반복한다. 복잡한 동물의 배 발생은 물고기에서 파충류, 포유류까지, 하등 동물의 형태를 위계적으로 반복한다. 개체는 전 동물이 발달해온 길을 법칙적으로 따른다.

▲ 19세기, 과거를 찾아간 기록

- 위고는 『레미제라블』(1862)에서 동물 격세유전을 암시하며 장 발장의 행동을 설명한다. “훔친 것은 그가 아니었다. 야수처럼 동전에 앞발을 올려놓은 것은 그 습성과 본성상 동물로부터 온 것이다.”

- 졸라는 『獸人』(1890)에서, 인간의 짐승 같은 본성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내재해있는 동물(성)을 지적한다. 소설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자크는 살인 충동을 유전 받았다. 그것은 원시 시대의 동물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졸라는 이렇게 감염된 더러운 흔적은 인간이 숲 속에서 금수들과 싸울 때에 비롯된 것이라고 암시했다.

- 이탈리아의 롬브로소(Cesare Lombroso)는 1876년 『범죄형인간L'uomo delinquente』을 썼다. 그는 수많은 증거를 인용하여 진화적 격세유전이 악명 높은 “born criminal”의 원인이며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원숭이같이 뽕족한 귀에 푹 튀어나온 턱 등 눈에 띄는 동물 조상들의 흔적을 갖고 태어난다.

- 빅토리아인들은 범죄의 원인과 관련하여 당대의 사회조건으로부터 먼 조상 혹은 심지어 동물 조상들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 지점은 당대 사회로서는 통제할 수도 없고 책임도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관리들은 천상 범죄자들을 하나의 인종처럼 따로 처리할 수 있었다.

- 졸라의 『나나』(1880)에서 여주인공은 4-5세대에 걸친 술주정뱅이 조상들의 후손이다. 그녀의 피는 가난과 술의 누적된 유전에 의해 오염되어있었다.

- 브램 스토커는 『드라큘라』(1897)에서 드라큘라 백작이 피를 통해 고대로부터 유전 받은 약탈 충동의 이미지를 이용한다. 드라큘라는 400년 전 조상들로부터 공격 충동을 흡수하였다, 그의 혈관을 통해. 그의 살해본능의 계보는 먼 조상과 동물 사이를 떠돈다. 그는 뱀파이어 소풍에서 박쥐로 변하고 파충류처럼 성벽을 기어 다닌다.

-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1886)에서 스티븐슨은 빅토리아인들이 회임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 상태에 대해 얼마나 근심했는지를 보여준다. 지킬 박사는 그가 자신의 도착적 분신인 하이드씨를 마음속에 품었을(conception) 때의 그 고통스러운 조건에 대해 개탄해마지 않는다. “내가 그 실험을 할 때 관대하고 경건한 열망 하에서 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텐데... 이 죽음과 탄생의 고통에서 벗어나, 적 대신 천사를 낳았을텐데”. 만일 지킬 박사가 하이드를 만들어낸 약을 섞을 때 다른 마음가짐이었더라면, 하이드는 전혀 다른 관대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으리라는 빅토리아인들의 생식에 대한 환타지를 잘 보여준다.